

러시아어 재귀 동사의 논항 구조

이 기 응*

- 개요 -

이 논문은 통사-의미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러시아어 재귀 동사의 일반적 기능을 명료하게 재정식화하고, 이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한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짚어보고 있다. 통사적으로, 러시아어 재귀 동사의 일반적 기능은 능동형 동사의 디폴트(default) 논항인 주어 및 직접 목적어 중에서 어느 하나나 둘 모두를 디폴트 논항의 영역에서 삭제하는 축소화 기능에 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그것의 일반적 기능은 동사로 지칭되는 과정을 참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것으로, 그리고 참여자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과정은 다른 참여자를 직접적인 피행위자로 겨냥하지 않는 양태로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내는 데 있다. 재귀 동사의 일반적 기능의 이러한 통사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은 동사의 어휘적 부류들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조응하고 결합하면서 다양한 구조적 가능성들로 전형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가능성들 각각은 다시금 개별 재귀 동사의 어휘-문법적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의 사용과 관련된 화용적, 문체적 요인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위 유형들로 보다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 제 어: 재귀 동사, 논항 구조, 축소화 기능, 태, 비인칭화, 탈타동화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문제의 정립

러시아어에서 재귀 동사를 형태적으로 나타내주는 후접사(postfix) 형태소 -ся/-сь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그것을 파생 접사로, 즉 비재귀형 동사의 맨 뒤에 붙어서 새로운 어휘로서 재귀 동사를 형성하는 형태소로 보는 입장이며, 이와는 달리 접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소사(частица, particle)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로는 후접사 -ся/-сь를 동사의 태(залог, voice)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로 규정하는 입장이 있다. 여기서 몇몇 대표적인 러시아 학자들의 입장들만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견해는 비노그라도프(Виноградов 1972/1947: 494 이하)를 위시해서 과학아카데미에서 집대성한 문법들(Шведова, и др. 1970; 1980)의 입장이며, 두 번째 견해는 재귀 동사에 대한 본격적인 상세한 기술을 시도한 얀코-트리니츠키야(Янко-Триницкая 1962: 36)의 입장이고, 세 번째 견해는 로모노소프(Ломоносов 1952/1755)로부터 출발해서 페슈코프스키(Пешковский 1956/1914: 113 이하), 샤희마토프(Шахматов 1941/1925-27: 476-481)를 거쳐서 야콥슨(Jakobson 1971/1932, 1971/1957)으로 이어지는 입장이다. 일견 서로 상이해 보이는 이러한 세 견해는 그러나 서로 절충될 수 있다. 일종의 소사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ся/-сь의 형태론적 특징에 관한 얀코-트리니츠키야의 견해는 그것을 파생 접사들 중에서 접미사가 아니라 후접사로 간주함으로써 수용될 수 있으며, 또한 후접사 -ся/-сь에 의한 어휘적 파생으로 형성되는 재귀 동사 자체를 동사 체계 내에서 태의 문법범주를 구성하는 대립 항들 중의 하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어에서 재귀 동사를 어휘 파생을 통해서 형성된 그리고 지금도 계속 형성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동사 부류로 본다면, 그것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통상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행해져 오고 있다. 하나는 어휘론적인 입장에서 재귀 동사의 다양한 의미적 특성들과 통사적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문법론적 입장에서 태라는 문법범주 내에서 재귀 동사가 갖는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가령, 어휘론적 입장에 서서 재귀 동사의 특정한 통사-의미적 현상만을 문법적 태의 현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며, 또한 문법론적인 입장에 서서 재귀 동사 전체 혹은 대다수를 문

법적 태의 현상으로 보면서 그것을 어휘적으로 혹은 통사-의미적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어휘론적인 접근방식이 우세한데, 그 이유는 재귀 동사들이 어휘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하고 복잡한 통사-의미적 양상들이 공통적인 어떤 단일한 구조화로 쉽사리 일반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어 재귀 동사에 관한 어휘론적인 접근방식의 주요한 작업들을 언급하자면, 가령 위에서 인용한 비노그라도프(1972/1947), 안코-트리니츠키야(1962), 과학아카데미 문법(1970, 1980) 이외에도, 게리트센(Gerritsen 1990), 윌리엄스(Williams 1993), 이스라엘리(Israeli 1997), 안혁(Ahn 2006)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접근방식의 문제점은 재귀 동사들이 보여주는 통사-의미적 다양성만큼이나 연구자들의 관점 및 이론적 입장들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와 하위 부류들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분류들은 재귀 동사의 현상적 다양성에 내재된 구조적 필연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종종 연구자들의 단순한 경험적 관찰이나 미리 설정된 이론적 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가령, 비노그라도프는 재귀 동사를 15가지 의미 부류들로 기술하고 있다면, 1970년의 과학아카데미 문법은 8가지 하위 부류로, 1980년의 과학아카데미 문법은 10가지 하위 부류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사첸코(Исаченко 1965)은 12가지 유형으로, 게리트센(1990)은 20여개 이상의 의미 부류로, 이스라엘리(1997)은 14가지 의미 부류로, 안혁(2006)은 9가지 의미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심지어 재귀 동사의 형성 가능성이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의 기술과 판단이 실제 언어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들도 발견되기도 한다. 가령, 안코-트리니츠키야(1962: 52)는 비인칭 재귀 동사 구문이 불가능한 능동형 자동사들과 그리고 재귀 동사의 형성이 불가능한 타동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몇몇 동사들의 경우에는 그녀의 판단과 맞지 않는다. 그녀가 비인칭 재귀 동사 구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течь* ‘흐르다’의 경우 우리는 실제 텍스트 상에서 반례를 발견할 수 있다.

1) Какая-то дикая река, – удивился Кус, – не течётся ей спокойно, всё мексиканские страсти подавай...¹⁾

“정말로 사나운 강이네, 평온하게 흐를 수는 없는 강이야, 단지 멕시코의 정열들만을 보여주고 있으니...” 쿠스는 놀라서 말했다.

1) Юрий Кузнецов(2017) “Лох-несская красавица,” *Лабиринты Волшебного мира*, Т. 3, <https://books.google.co.kr/books?isbn=5457723755>(검색일: 2017.03.11).

그리고 그녀의 판단에 따르면 타동사 благодарить ‘감사하다’, ранить ‘다치게 하다’ 등은 재귀 동사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들이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2) Компания спонсора будет благодаритьс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в начале.²⁾
스폰서 기업은 처음에 의장에 의해 감사받을 것이다.

3) Ей нельзя ушибаться, раниться, стесывать об асфальт коленки.³⁾
그녀는 타박상입을 수도, 부상당할 수도, 아스팔트에 무릎팍이 까질 수도 없다.

한편 재귀 동사 전체나 대다수를 동사의 태로 간주하는 문법론적인 입장의 경우, 재귀 동사의 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가령, 로모노소프(1952/1755: 481 이하)는 재귀 동사의 태를 재귀, 상호, 중간, 일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라틴어 전통 문법의 정립에 커다란 역할을 한 프리스키아누스(Priscianus; 4세기)의 문법 및 이것을 이어받은 멜레티 스모트리츠키(Мелегий Смотрицкий)의 문법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구분 방식은 샤흐마토프(1941/1925-27: 476-481)까지도 이어진다. 이와 달리 포르투나토프(Фортунагов 1957/1897: 264-265)는 타동사로부터 파생되는 재귀 동사의 경우만을 하나의 단일한 태로 규정하며, 그러한 방식을 페슈코프스키(1956/1914: 113-124)는 전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재귀 동사 전체를 하나의 단일한 태로 규정한다. 그런데 포르투나토프 식으로 설정된 재귀태의 경우에는 그것의 일반적 기능을 파생된 자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페슈코프스키 식으로 동사의 재귀형 대 비재귀형의 대립을 태로 보는 경우에는 재귀태의 일반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실제로 페슈코프스키의 설명 자체도 재귀태의 일반적 의미는 그것이 다양하다

2) <https://sites.google.com/site/konferenciapredprinimatelej/partnery/partneram/sponsorskie-vozmozhnosti/sponsirovanie-priemov>(검색일: 2017.03.11).

3) “Помогите, пожалуйста!” *Домовой*, 2002.05.04;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НКРЯ). 재귀 동사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언급된 또 다른 타동사 умолять ‘간원하다’는 실제로 <러시아어 국가 자료모음>에서 검색이 안 되지만, 그러나 구글(Google) 검색을 해보면 재귀 동사 умоляться ‘간원하다(자동사)’의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온다. 검색상의 이러한 차이 또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는 사실에 있다는 것만을 언급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야콥슨의 경우, 그의 1932년 논문에서 재귀태의 일반적 의미를 유표화된 자동성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포르투나토프의 견해를 이어받은 것이라면, 그의 1957년 논문은 페슈코프스키 식으로 재귀태를 설정하면서 그것의 일반적 기능은 발화가 표상하는 과정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야콥슨 식의 견해와 더불어 테니에르(Tesnière 1965/1959: 275)를 참조하면서, 이기웅(Lee 1990)은 재귀태의 일반적 기능을 동사가 나타내는 과정이 그 자체 속으로 접히도록 의미적으로 한정함으로써 통사적으로 논항 구조를 축소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어 동사의 문법 범주로서 태를 어떤 체계로 구조화하느냐는 문제는 결국 재귀 동사의 통사-의미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문법적인 현상과 어휘적인 현상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⁴⁾ 가령, 문법 범주로서 능동태 대 수동태의 대립만을 인정하면서 따라서 불완료상 타동사로부터 형성된 재귀 동사의 수동적 용법만을 태의 현상으로 간주하는 과학아카데미의 문법(1970, 1980), 재귀 동사 전체를 태의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재귀 대 비재귀의 대립만이 태의 문법 범주를 구성한다는 야콥슨(1957)의 입장, 재귀 동사의 의미들 중에서 파생된 자동성만을 태로 간주하는 바비와 브레히트(Babby and Brecht 1975)의 변형 생성 문법적인 접근, 재귀 동사의 수동적 용법, 재귀적 용법, 상호적 용법을 태로 간주하는 흐라코프스키(Храковский 1981)의 입장, 그리고 능동 대 재귀라는 일반적 대립과 그리고 완료상 타동사 내에서의 능동 대 수동이라는 제한된 대립으로 태의 범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이기웅(1990)의 입장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해결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재귀 동사에 관한 문법적 해결방식의 비단일성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질문에 얼마나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 재귀 동사가 보여주는 통사-의미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어떤 핵심적인 구조적 특성이 있는가? 둘째, 역으로 그러한 공통된 구조적 특성은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재귀 동사들의 통사-의미적 다양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4) 이에 관한 어느 정도 상세한 개관으로는 비노그라도프(1972/1947: 480-494), 이기웅(1990: 11-79)을 참조할 것.

2. 핵심적인 구조적 특징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해 오고 있듯이, 위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결은 동사의 논항 구조와 관련해서 재귀 동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 특징, 즉 축소화 기능(recessive function)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전형적인 재귀 동사들의 경우만을 고려한다면, 다시 말해서 능동형 동사로부터 파생된 재귀 동사가 통사적 논항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한다면(краснеться ‘빨갱게 보이다’, стучаться ‘두드리다’ 등), 재귀 동사는 그것과 상관관계에 있는 능동형 동사의 주어나 직접 목적어를 삭제시키는 일반적 특징이 있다. 이때 삭제된 논항은 재귀 동사의 논항 구조 속에서 다른 유형의 통사적 논항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통사적으로 완전히 배제된다. 그러면 재귀 동사의 이러한 통사적 논항 구조의 축소화 기능의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читаться ‘읽히다’의 예를 살펴보자.

- 4) (Мне) не читается.
(나는) 읽히지 않는다.
- 4') Я не читаю.
나는 독서하지 않는다.
- 5) Эта книга (мне) не читается.
이 책은 (나는) 읽히지 않는다.
- 5') Я не читаю эту книгу.
나는 이 책을 읽지 않는다.
- 6) Эта книга не читается нашими товарищами.
이 책은 우리 동지들에 의해서 읽히지 않고 있다.
- 6') Наши товарищи не читают эту книгу.
우리 동지들은 이 책을 읽지 않고 있다.

불완료상 타동사 читать ‘읽다’에 대해서 이것으로부터 형성된 재귀 동사 читаться ‘읽히다’는 위의 예 4), 5), 6)과 같은 세 가지 논항 구조를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갖는다. 그리고 각각의 구조에 대응되는 능동형 동사의 예 4'), 5'), 6')를 제시한 것은 이 예들 각각으로부터 단순한 통사적 변형에 의해서만 4), 5), 6)이 도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위의 예 4)와 4'), 5)와

5'), 그리고 6)과 6')를 비교해 보면, 한편으로는 능동형 동사에 대해서 재귀 동사가 어떤 방식으로 통사적 논항을 축소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적 차이를 확실히 감지할 수 있다.

먼저 예 4)와 4')의 비교에서 보듯, 타동사 *читать*의 비타동적 혹은 절대적 용법의 경우 재귀형의 형성을 통해서 축소될 수 있는 논항은 당연히 주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재귀 동사는 비인칭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 결과, 비인칭 재귀형 *читается*는 '읽다'라는 과정이 거기에 참여하는 '읽는 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과정임을 나타내는 의미적 한정의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상태와 관련해서 '읽는 이'를 나타내는 논항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내적으로 겪는 '경험자'라는 의미적 역할을 갖게 되며, 때문에 러시아어의 격 체계 내에서는 그러한 유형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낼 때 전형적으로 쓰이는 여격 논항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어에서 이 같은 유형의 여격 논항은 문장 단위의 구성에서 반드시 통사적으로 명시될 필요 없이 단지 문맥적으로만 함축될 수도 있다.

이어서 예 5)와 5')의 비교는 타동사 *читать*의 직접 목적어가 재귀 동사 *читаться*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문법적 메커니즘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X가 Y를 읽는다'는 타동적 과정이 재귀 동사 *читаться*를 중심축으로 해서 표상되면서 '읽는 이'가 주어로 올 수 없게 된 이상, 그 자리는 당연히 '읽히는 대상'이 차지하게 된다. 이때 *читаться*는 4)의 예와 마찬가지로 '읽는 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내기, 그러한 과정을 내적으로 겪는 '경험자'로서 '읽는 이'와 대응하는 통사적 논항 역시 4)와 마찬가지로 여격 논항이 된다. 때문에 예 5)는 그것과 상응하는 능동형 동사의 예 5')와 의미적으로 명백히 차이가 난다. 이상과 같은 문법적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는 예 5)와 같은 재귀 동사의 논항 구조가 수동태의 논항 구조가 아님은 물론이다.

반면 예 6)에서 재귀 동사 *читаться*의 논항 구조는 수동태의 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법하다. 대응되는 능동형 동사의 예 6')와 비교해 보면, 6)에서든 6')에서든 모두 '읽는 이'는 '행위자'로서의 의미 역할을, 그리고 '읽히는 대상'은 '피행위자'로서의 의미 역할을 갖는 논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 6)과 6')는 각각 발화의 화제와 초점이 다를 뿐, 의미상으로는 — 적어도 지시적 차원에서는 — 거의 동일해 보인다. 이처럼 예 6)과 같은 구조를 재귀 동사의 수동태적인 용법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문법적으로 규칙화된 수동태의 구조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귀 동사의

수동태적인 용법은 원칙적으로 {주어 + 불완료상 타동사의 재귀형}이라는 탈타동화된 구조가 수동적 과정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는 잠재성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행위자 조격 논항과 결합될 때 가능하다. 이 같은 불완료상 재귀 동사의 수동태적 용법은 그 구성적 인위성으로 인해서 문체적으로도 제약을 받는데, 가령 일상 대화나 문학 텍스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실무 문제나 과학-기술 문제, 보고서 문체 등에서나 상대적으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지적인 지향적 과정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불완료상 타동사인 читать ‘읽다’에 대해서 그것의 재귀 동사 читаться ‘읽히다’는 그러한 과정의 재귀성을, 다시 말해서 ‘읽다’라는 과정이 지향 대상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것을 위와 같은 세 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 즉 재귀적인 과정 자체만을 나타내는 방식(비인칭 구조), 지향 과정과 관련해서 대상이 갖는 속성을 한정하는 방식(탈타동적 구조), 지향 대상을 출발점으로 해서 지향 과정 전체를 제시하는 방식(수동태적 구조) 중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대비해서, 물리적 과정을 나타내는 불완료상 타동사 бросать ‘던지다’의 재귀 동사 бросаться ‘어떤 것을 향해 던지는 또는 던져지는 양태의 운동을 하다’는 위의 경우와는 다른 탈타동화의 구조적 유형들을 예시해 준다.

7) Саша бросается на выход.
사샤는 출구로 뛰어나간다.

8) Книги бросаются куда попадёт.
책들이 아무데나 던져진다.

9) Обвинение в идеализме бросалось друг другу обеими сторонами.⁵⁾
관념주의라는 비난이 양편으로부터 서로에게 던져졌다.

불완료상 타동사 бросать의 기본 의미를 ‘X가 Y를 어디로 던지다’로 본다면, 재귀 동사 бросаться는 그러한 과정의 재귀성을 던져지는 대상의 운동의 과정으로 표상한다. 이때 만일 ‘X’가 사람이나 동물이라면 ‘Y’는 ‘X 자신의 몸’이 되며 타동사의 목적어는 삭제된다. 그리고 예 7)이 보여주듯이, 재귀

5) Михаил Голубовский(1998) “50 лет после погрома генетики: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Знание – сила, НКРЯ.

동사의 주어는 ‘동작주’ 또는 ‘운동의 주체’라는 의미 역할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고 타동적 과정의 ‘행위자’ 주어 ‘X’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예 8)이 보여주듯이 ‘Y’가 재귀 동사의 주어가 되면서 ‘운동의 과정을 펼치는 대상’이라는 의미 역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예 8)과 같은 구조가 ‘행위자’ 조격 논항과 결합될 수 있을 때, 재귀 동사 бросаться는 예 9)처럼 수동태적인 논항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이외에도 이 동사의 아래와 같은 예들을 보자.

10) Саша/Синяя книга бросается мне в глаза.
사샤가/파란색 책이 내 눈에 확 들어온다.

11) Студентки бросались снегом.
여대생들이 눈을 가지고 서로 던지고 있었다.

12) Саша бросается в кошек камнями.
사샤는 고양이들에게 돌팔매질한다.

불완료상 운동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운동 과정을 나타내지만 종종 서술자의 정태적 프레임 속에 고정된 내적으로 탈시간화된 과정을 가리키는 전이적인 의미로도 쓰인다(가령, автобус идёт на вокзал ‘버스는 역으로 간다’처럼). 관용적 표현 бросаться в глаза ‘눈에 확 들어오다’는 바로 그러한 전이적 의미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 경우 예 10)에서 보듯 주어의 의미 역할을 활성/불활성에 따라서 ‘운동의 주체/운동을 펼치는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의 중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 11)은 재귀 동사가 상호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호적 용법 역시도 재귀 동사에 의한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 삭제의 한 유형이다. 상호적 용법에서 재귀 동사의 주어는 언뜻 생각하면 타동사의 주어와 동일한 의미 역할, 즉 ‘행위자’의 의미 역할을 갖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타동사의 논항 구조가 {주어 ⇒ ‘행위자’}와 {직접 목적어 ⇒ ‘피행위자’}로 특징지어진다면, 상호적 의미의 재귀 동사에서 주어는 ‘행위자’이자 동시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피행위자’라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 예 12)는 타동사 구조 бросать камни в кошек ‘고양이들에게 돌들을 던지다’와는 명백한 통사적, 의미적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타동사 구조에서 직접 목적어가 주변화된 구조라 할 수 있는 бросать

камнями в кошек ‘돌을 가지고 고양이들에게 던지다’와는 섬세한 의미적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예 12)에서 재귀 동사는 주어의 내적 성향이나 상태와 연관된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주어는 문제가 되는 타동적 과정의 단순한 ‘행위자’가 아니라 그것이 내재적인 ‘행위자’로 표상된다고 볼 수 있다. 예 12)와 같은 경우에 완료상이 안 쓰인다는 것도 이 점을 시사해 준다.

이어서 계속해서,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가 삭제되지만 주어는 그대로 유지되는 재귀 동사의 예들을 좀 더 살펴보자.

- 13) Мы с женой строимся в деревне.
나와 아내는 시골에다 (스스로 살 집을) 짓는다.
- 14) Мы открываемся каждый день.
우리는 (가게를) 매일 연다.
- 15) Муж сам бреется дома.
남편은 집에서 스스로 면도한다.
- 16) Муж обычно бреется у парикмахера.
남편은 통상 이발사에게서 면도한다.
- 17) Собака кусается, а кошка царапается.
개는 물지만, 고양이는 핏다.
- 18) Маша вслушалась в песню.
마샤는 노래에 귀 기울였다.

예 13)의 재귀 동사는 행위자를 위한 행위, 다시 말해서 주어가 스스로 수혜자가 되는 행위를 가리키다. 재귀 동사의 이러한 수혜적 용법의 경우 단지 의미론적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면 행위의 대상을 가리키는 목적어가 삭제될 이유가 없을 법도 해 보인다. 그렇지만 재귀 동사의 기본 기능 중의 하나가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를 삭제하는 데 있는 이상, 아무리 의미적으로 함축된 대상일지라도 그것을 통사적으로 재귀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재귀 동사에 의한 이 같은 목적어 삭제는 러시아어에서 특히 강한 타동성을 지니는 동사의 목적어를 그대로 삭제할 수 없다는 제약을 통

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기능을 갖는다. 왜냐하면 발화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 목적어를 언급하지 않고 동사가 나타내는 과정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예 14) 역시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 15)와 같은 경우에는 재귀 동사 *бриться* ‘면도하다(자동사)’를 재귀 대명사가 목적어인 타동사 구문 *брить себя* ‘자기 자신을 면도하다’와 동의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의 예 16)은 그렇지만 그러한 동의적 관계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예는 재귀 동사 *бриться* ‘면도하다’가 자동사와 가까우며, 또 사역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17)과 같은 경우 재귀 동사는 타동사의 비한정적인 목적어를 삭제하면서 주어에 내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예 18)은 타동사 *слушать* ‘듣다’에 접두사 *в-* ‘안으로’와 후치사 *-ся*가 붙어서 탈타동화된 재귀 동사 *вслушаться*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다’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로서 ‘지각 대상’은 전치사구 형태의 보어로 전환된다. 이상과 같은 관찰들을 통해서 볼 때, 결국 위의 예 13)~18)은 모두 ‘자신과의 연관 속에서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주어이면서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탈타동사화된 동사에 의미적 초점이 맞춰져 있는 논항 구조의 여러 가지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감정적 과정을 나타내는 재귀 동사들의 주어는 의미적으로 볼 때 위의 예들에서보다도 훨씬 더 자동사의 주어에 가깝다. 이 재귀 동사들의 주어는 *reflexiva tantum*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응하는 사역 타동사들의 직접 목적어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가령, 아래의 예들은 이 점을 잘 예시해준다.

- 19) *Мать радуется успеху сына.*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에 기뻐한다.
- 19') *Успех сына радует мать.*
아들의 성공이 어머니를 기쁘게 한다.
- 20) *Народ возмущается президентом.*
국민은 대통령에게 분노한다.
- 20') *Президент возмущает народ.*
대통령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그런데 사역 타동사 구조 19'), 20')와 재귀 동사 구조 19), 20) 사이의 통사적

전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9)와 19')를 그리고 20)과 20')를 각각 동의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사역 타동사 구조의 직접 목적어는 '피행위자'로서 '감정적 지향의 수동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재귀 동사의 주어는 '감정적 지향의 주체'라는 의미 역할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주어는 자동사의 주어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가령 위의 예 19)에서 재귀 동사 радоваться '기뻐하다'를 자동사 ликовать '정신없을 정도로 기뻐하다'로 교체하면, 보다 큰 기쁨의 과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또 20)에서는 возмущаться президентом '대통령에 분노하다' 대신에 негодовать на президента '대통령에 대해 분개하다'로 바꾸면, 덜 지속적인 분노의 과정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 4)~20)을 통해서, 우리는 재귀 동사의 기본적인 핵심 기능이 능동형 동사의 주어나 직접 목적어를 삭제함으로써 능동형 동사가 가리키는 과정을 무주어 구조나 탈타동적인 구조로 변용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reflexiva tantum의 경우도 이 기본적인 기능을 전형적인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의 확인과 동시에 우리는 예 5)~20)과 같은 탈타동적인 구조에서 재귀 동사의 주어는 다양한 의미 역할들과 대응된다는 것도 보았다. 그러한 의미 역할들은 '행위자'와 같은 성격의 것과 '피행위자'와 같은 성격의 것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배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a) 상호적 과정의 행위자 - 예 11), (b) 수혜적인 과정의 행위자 - 예 13), 14), (c) 자신에게 행해지는 과정의 직간접적인 장본인 - 예 15), 16), (d) 자신에게 내재적인 과정의 행위자 - 예 12), 17), (e) 지각 과정의 동작주 - 예 18), (f) 감정적 지향의 주체 - 예 19), 20), (g) 물리적 운동의 동작주 - 예 7), (h) 물리적 운동을 펼치는 대상 - 예 8), 10), (i) 지향적 과정의 대상 - 예 5), (j) 수동적 과정의 피행위자 - 예 6), 9). 그러나 이 같은 의미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재귀 동사의 주어는 탈타동적인 혹은 자동사적인 구조의 제1 논항이라는 통사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

3. 기본 구조의 다양한 분화

그렇다면 재귀 동사의 주어의 이러한 의미적 다양성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어휘소로서 재귀 동사 자체의 통사-의미

적 특징과 관련이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그러한 어휘적 특징을 발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논항들의 통사-의미적 특징과도 연관이 있다. 어휘적 특징에 따라서 하나의 재귀 동사는 통상 하나 이상의 구조적 가능성을 갖는데, 가령 앞에서 본 것처럼 *читаться* ‘읽히다’는 무주어 구조, 수동적 지향 상태의 구조, 수동태적 구조와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을 갖는다면, *бросаться* ‘어떤 것을 향해 던지는 또는 던져지는 양태의 운동을 하다’는 능동적 또는 수동적 운동, 수동태적 구조, 상호적 과정, 내재적 과정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반면 *радоваться* ‘기뻐하다’는 감정적 지향의 과정이라는 하나의 구조만을 특징으로 하며,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смеркаться* ‘어두워지다’는 무주어 구조의 가능성 밖에 없다.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명한 사실의 고려와 더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재귀 동사의 다양한 통사-의미적 가능성 또한 개별 동사의 어휘적 특징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논항 구조의 문맥적 한정에 따라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요컨대, 재귀 동사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유형의 구조적 전형성들 각각은 개별 동사들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문맥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변이형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선 무주어 구문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21) Как вам по волостям ездилось?⁶⁾

당신은 어떻게 읍면들마다 다닐 수 있었나요?

21') Как поработалось?⁷⁾

어떻게 일이 좀 됐냐?

22) О них говорилось с озлоблением, с грустью.⁸⁾

그녀들에 관해서는 한스럽게 말해지곤 했다.

22') Но, к счастью, сказалось не слишком сильно.⁹⁾

그러나 다행히도 너무 강하지 않게 말해졌다.

23) Жара и жажда. В голове мутилось.¹⁰⁾

6) Борис Пастернак, *Доктор Живаго*. 앞으로 예들 중에서 출처에 НКРЯ 표시가 없는 것들은 필자가 직접 찾은 예들이다.

7) Виктор Лаврентьев, *Чти отца своего*.

8) Максим Горький, *Мои университеты*.

9) Дмитрий Зыков(2009) “Внимание, воздух! <...>,” *Наука и жизнь*, НКРЯ.

더위와 갈증. 머릿속은 흐릿해져갔다.

23') У неё закружилась голова, в глазах помутилось, <...>.11)
그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으며, 눈은 흐릿해졌다.

24) И хочется ему, чтобы кудрявилось вокруг и зеленелось.12)
그리고 그는 주변이 울창하고 푸르러지기를 바란다.

24') Сухой пенёк вдруг захотел, чтоб и на нём зазеленелось...13)
마른 그루터기는 갑자기 자기 위도 푸르러졌기를 바랐다.

동사의 비인칭형은 ‘행위자’나 ‘동작주’, 혹은 수동태 같으면 ‘피행위자’ 등에 상응하는 의미 역할을 갖는 주어를 발화에서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논항으로 강등시킴으로써 다른 의미 역할을 갖게 만든다. 비인칭 재귀 동사에 관한 위의 예 21)~24)도 모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 21)은 러시아어에서 생산적인 유형의 비인칭 재귀 동사의 예이다. 일반적으로 불완료상 자동사들 및 직접 목적어 없이 절대적 용법으로 쓸 수 있는 불완료상 타동사들은 문맥이 허용되면 이러한 유형의 비인칭 재귀 동사로 쓰일 수 있다. 이 경우 비인칭 재귀 동사는 의미적으로, 어떤 과정이 그것에 관여된 참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거기에 통사적으로 부가될 수 있는 여격 논항은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경험자’를 나타낸다. 때문에 이런 유형의 비인칭 재귀 동사는 전형적으로 불완료상일 수밖에 없는데, 예 21)는 그러한 제약에 대한 예외를 보여준다. 이 같은 예외는 가령 한국어의 부사 ‘좀’과 같은 양적 한정을 의미하는 접두사 по-가 붙는 почитаться ‘좀 읽다’, пописаться ‘좀 쓰다’, пофилософствоваться ‘철학 좀 하다’ 등과 같은 완료 동사들에서, 그리고 시발적인(inchoative) 과정을 나타내는 всплакнуться ‘좀 울음이 터지다’, заснуть ‘잠들다’ 같은 완료 동사들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14) 반면 예 22)와 22'), 23)과 23'), 그리고 24)와 24)에서 보듯, 화행과 인지와 연관된 과정을 나타내는 재귀 동사들, 몸이나 마음의 상태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재귀 동사들, 그리고 주변의 자연

10) Михаил Гиголашвили, *Чертово колесо*; НКРЯ.

11) Василий Гроссман, *Жизнь и судьба*.

12) www.jewish-library.ru/roziner/nekto_finkelmayer/3-4.htm?page...(검색일: 2017.03.18).

13) <https://poembook.ru/poem/264390>(검색일: 2017.03.18).

14) Gerritsen(1990), 179-180 참조.

현상을 나타내는 재귀 동사들의 경우, 비인칭형은 별다른 제약 없이 불완료상뿐만 아니라 완료상에서도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위의 예 21)~24)가 예시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reflexiva tantum 중에서 прийти '하게 되다', удался '제대로 되다', случиться '일어나다' 같은 몇몇 개별적인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재귀 동사의 비인칭형은, 즉 무주어 구조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 같은 개괄적인 추정은 재귀 동사들을 어휘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관찰해 보면 다소 일반성을 잃게 된다. 가령, 몸과 마음의 상태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재귀 동사들 중에서 감정과 관련된 것들은 무주어 구조가 가능한 것도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 그 자체로 reflexivum tantum인 смеяться '웃다', бояться '두려워하다' 같은 동사들은, 그리고 радоваться '기뻐하다', сердиться '화내다' 등과 같이 사역 타동사들로부터 파생된 재귀 동사들 중의 다수는 무주어 구문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슬픔과 두려움처럼 원치 않는 감정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예들처럼 무주어 구문이 가능하다.

25) Сегодня так мне тяжело, так грустится... Хоть ты мою тоску развей.¹⁵⁾
오늘 나는 이토록 괴롭고, 이토록 서러운 마음이 든다... 비록 네가 나의 이 심한 슬픔을 해소하겠지만.

26) Живётся гладко вам? Вам не волнуется?¹⁶⁾
당신들은 매끄럽게 살아지나? 당신들은 불안해지지 않나?

27) Стыдно, но Славе не печалилось из-за маячивших рядом, как химеры в тумане, нелепых мелочей.¹⁷⁾
부끄럽지만, 그래도 슬라바는 마치 짙은 안개 속의 키메라들처럼 곁에서 아른거리는 무의미한 사소한 것들 때문에 슬퍼지지는 않았다.

이 예들에서 비인칭 재귀 동사는 원치 않는 감정이 느껴지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러한 용법은 기쁨이나 분노와 같은 종류의 감정을 나타내는 재귀 동사들에게까지 일반적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다. 비인칭 재귀

15) Александр Островский, *Василиса Мелентьева*; Янко-Триницкая(1962: 216)에서 재인용.

16) Евгений Евтушенко, *Песни революции*; Янко-Триницкая(1962: 221)에서 재인용.

17) Дарья Симонова, *Первый*, НКРЯ.

동사 хотеться ‘원해지다’에서 보듯 의지와는 상관없이 욕망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기쁨이나 분노의 감정적 과정이 ‘기뻐지다’나 ‘분노되다’로 표현되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서 재귀 동사의 수동태적 가능성을 살펴보자.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듯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불완료상 타동사로부터 형성되는 재귀 동사의 주어가 원래 동사의 직접 목적어에 상응할 때, 그리고 그것이 주로 불활성 명사일 때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같은 조건들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도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들도 흔치않게 발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이 같은 조건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규정은 아래의 예들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28) Молодёжь обманывается.

청년은 속는 법이다/ 청년들은 속고 있다.

28') Молодёжь умышленно обманыва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ом.¹⁸⁾

청년들은 국가에 의해 용의주도하게 기만당하고 있다.

29) Золото скрывается под землёй.

금은 땅 밑에 숨어 있다/숨겨지고 있다.

29') Золото скрывается Иваном.

금은 이반에 의해 숨겨지고 있다.

문맥이 없는 경우, 예 28)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결정될 수 없다. 단지 활성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속임을 당하다’의 의미보다는 ‘스스로 속다’의 의미 쪽을 향해 더 기울어져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예 28')처럼 ‘행위자’ 조격 논항이 있는 명시된 문맥에서 29)의 구조는 수동태적인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 29)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결정될 수 없다. 만일 광물로서의 금이 화제가 되는 문맥이라면 그것은 자동사적인 구조로 해석되며, 그렇지 않고 물건으로서의 금이 화제가 되는 문맥이라면 수동태적인 구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행위자’ 조격 논항이 부가된 예 29')는 명백히 수동태적인 구조의 가능성밖에는 가지지 않는다. 이처럼 {주어 + 불완료상 타동사로부터 파생된 재귀 동사}의 구조는 그 자체로 수동태적 의

18) Дмитрий Грибанов, *Философские основания теории относительности*.

미를 지니지 못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자’ 조격 논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적어도 문맥적으로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타동사로부터 파생된 재귀 동사들 중에서 왜 불완료상 동사들만이 ‘행위자’ 조격 논항으로 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발화란 관찰자 또는 서술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나타내는 언어적 구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불완료상 재귀 동사의 수동태적 의미의 경우, 그것이 나타내는 과정은 ‘피행위자’ 주어를 출발점으로 해서 진행 중이거나 지속되거나 또는 반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렇게 관찰되는 바로의 과정 자체는 내적으로 그 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는 구조를 의미적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열려 있는 과정의 관찰 범위 속에는 그것과 결부되고 있는 ‘행위자’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완료상 타동사로부터 형성된 재귀 동사의 경우에는 주어를 출발점으로 해서 내적으로 종결된 과정을 나타내기에 그러한 과정의 관찰 범위 속에 ‘행위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게 된다. 요컨대, 재귀 동사의 수동태적 구조가 그리고 ‘행위자’ 조격 논항과의 결합이 기본적으로 불완료상 동사에 게만 가능하고 완료상 동사에게는 불가능한 것은 재귀 동사가 나타내는 과정과 그것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에서의 언어적 표상 사이의 밀접한 의미적 연관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가령 아래의 예들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확인된다.

30) Через консьержек нами покупалась прислуга, служившая у мсье Савинкова <...>.19)

문지기 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해 매수되고 있던 것은 [...] 므쉴 사빈코프 집에서 일했던 하녀였다.

30') Тогда на посулы власти купились только двое наших бывших товарищей <...>.20)

그 당시 권력의 뇌물에 매수된 것은 과거의 우리 동지들 중에서 두 명뿐이었다 [...].

19) Р. Б. Гуль, *Азеф*, НКРЯ.

20) Геннадий Зюганов, “Партия через выборы <...>,”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2003.08.09, НКРЯ.

31) <...> автомобиль, марка которого ранее покупалась только мужчинами.²¹⁾

[...] 이전에는 단지 남자들에 의해서만 구매되던 상표의 자동차.

31') Сапоги давно нужно было купить, ну а финский нож к чему? Купился он сам собой как-то.²²⁾

부츠는 오래 전부터 살 필요가 있었지만, 그런데 핀란드 단검은 무엇에 필요했을까?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 저절로 사졌다.

32) Речь шла лишь о том, чьими руками будет создаваться украинская культура: большевистскими или национальн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²³⁾

논지는 우크라이나 문화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창조될 것인가, 볼셰비키의 손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민족 지식인의 손에 의해서인가, 오직 이것에 관한 것이었다.

32') Новый мир создастся вокруг меня: я буду обложен зверскими чувствованиями и скотскими понятиями.²⁴⁾

새로운 세계가 내 주위에 창조될 것이다; 나는 야수 같은 감각들과 짐승 같은 관념들로 둘러싸일 것이다.

예 30)과 30'), 31)과 31'), 그리고 32)와 32')는 각각 불완료상 재귀 동사의 수동태적 용법과 그리고 대응되는 완료상 재귀 동사의 그것과 유사한 용법을 예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기술되는 상황 속에 '행위자'의 참여가 고려되면서 조격 논항으로 부가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고려가 없는 닫힌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예 31')에서 완료상 재귀 동사를 한정하고 있는 *сам собой* '저절로'라는 표현은 기술되는 과정이 수동적 의미보다는 자동사적 의미에 가깝다는 것을, 즉 타동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행위자'에 대한 고려가 내재되지 않는 과정의 의미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예들을 본다면, 완료상 재귀 동사가 수동태적 구조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 같지는 않다.

33) Их подробная история ещё когда-нибудь кем-нибудь напишется, а нам и мериться нечего вместить её в наше исследование.²⁵⁾

21) Виктория Курачева, "Метод «Mystery Shopping» <...>," *Coach*, 2008, НКРЯ.

22) Михаил Булгаков, *Таракан*, НКРЯ.

23) Андрей Марчуков, "Операция «Голодомор»," *Родина*, 2007, НКРЯ.

24) О. И. Сенковский, *Осенняя скука*, НКРЯ.

그들의 상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언젠지 그 누구에 의해서라도 써질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우리의 탐사보고 속에 넣는 데 비견할 아무것도 없다.

34) <...> но как бы они ни переплетались и ни усложнялись, однажды всё содеянное каждым откроется, всплывёт и зачтётся, <...>.26)
 [...]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서로 엮이고 복잡해질지라도, 언젠가 행해진 모든 것이 각자에 의해서 발견되고, 드러나고, 심사숙고될 것이다 [...].

이 두 예는 완료상 재귀 동사에 ‘행위자’ 조격 논항이 부가된 수동태적 구조를 보여주는 아주 드문 경우들이다. 이 같은 예외가 가능해진 것은 아마도 두 경우 모두 미래 시제이기 때문인 것 같다. 즉, 두 예 모두 서술자의 믿음 속에서 비한정적이지만 반드시 있을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귀 동사의 이러한 용법이 문법적인 원칙상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위와 같은 예들로만 국한되는 개인어(idiolect)의 현상인지는 앞으로 조사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어쨌든 역설적으로, 위의 예 33), 34) 역시도 타동사로부터 형성된 재귀 동사의 수동태적 용법은 파생된 동사 자체에 내재된 문법적 특징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행위자’ 조격 논항의 부가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확장된 구조적 가능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상적 구어나 문학 텍스트 같은 “기능 문체(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стиль)”들에서는 재귀 동사의 이처럼 확장된 수동태적 구조의 활용은 대단히 빈도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러한 기능 문체들에서는 수동 분사에 의한 수동태 구문의 경우에도 행위자 조격 논항이 드물게 나타난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일상적인 구어나 민중어에서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reflexivum tantum인 {접두사 + 능동형 동사 + 후접사 -ся} 유형의 재귀 동사를 살펴보자.

35) <...> и теперь я в состоянии со вниманием всматриваться и вслушиваться в творящуюся вокруг меня жизнь.27)

25) Александр Солженицын, *Архипелаг ГУЛлаг*, НКРЯ.

26) Алексей Варламов, *Купавна*, *Новый Мир*, 2000, НКРЯ.

27) Валентин Распутин, “Наташа.”

[...] 그리고 지금 나는 주의 깊게 내 주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삶 속으로 응시하며 귀 기울일 수가 있다.

36) У нас ведь врача не дозовёшься...²⁸⁾

우리네는 필시 아무리 불러도 의사는 안 올 거니까...

36') Велел шофёру быть при машине. А радисту – Урал дозывать.²⁹⁾

운전수에게 자동차 옆에 있으라고 명령했다. 무선기사에게는 우랄을 끝까지 불러 보라고 하고.

37) Порерёк едут – под самый нос режут... Спешат всё... доспешатся...³⁰⁾

가로 질러서 가네, 바로 코 밑을 손살같이 스쳐가네... 계속 서둘러 가네... 뒤통도록 서둘러 가게 될 거다...

예 35)의 불안료상 reflexiva tantum은 타동사 *смотреть* ‘바라 보다’, *слушать* ‘듣다’로부터 파생된 완료상 동사 *всмотреться* ‘몰입해서 응시하다’, *вслушаться* ‘몰입해서 귀 기울이다’와 상의 쌍을 이룬다. 이 동사들은 지각적 과정의 ‘동작주’를 주어로 갖는 탈타동적 과정을 나타내며, 예에서 보듯 접두사 *в-* ‘안으로’와 조응하는 전치사구 형태의 보어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문체적으로 “규범어(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에 속하는 어휘들이다. 예 36)과 36')도 마찬가지로 타동사 *звать* ‘부르다’로부터 접두사 *до-* ‘끝까지’와 후접사 *-ся*가 동시에 붙어서 파생된 완료상 동사와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불안료상 동사의 예들이다. 이 동사들도 역시 문체적으로는 “규범어”에 속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들에서 보듯이 이 재귀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원래 완료 동사 *дозваться* ‘여러 번 반복해서 끝까지 부르다’는 생-대격 형태의 목적어를, 즉 인칭 대명사나 활성 명사 유형의 직접 목적어를 특징적으로 취하는 동사였는데, 이것보다 현저히 드물게 사용되는 불안료상 동사의 예 36')는 불활성 명사로까지 목적어의 영역이 확대된 경우를 보여준다. 이 같은 예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дозваться*와 *дозываться*는 논항 구조상 타동사와 동일하지만 목적어의 표현 영역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재귀 동사의 일반적인 통사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주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³¹⁾ 한편 예 37)은 앞

28) Булат Окуджава, *Новенький как с иголочки*.

29) Александр Солженицын, *Адиг Швенкиттен*, НКРЯ.

30) Виктор Розов, *В день свадьбы*.

31) 크릭시코(Крысько 2006: 410)에 따르면, 규범적인 현대 러시아어에서 이처럼 재

의 다른 reflexiva tantum과는 달리 문체적으로 민중속어에 속하는 dospешиться ‘끝장 날 때까지 서두르게 되다’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사에는 아직 상의 짝을 이루는 불완료상 동사가 없다. 그리고 이 동사 역시도 능동형 동사 спешить ‘서두르다’와 논항 구조상 동일한 자동사라는 측면에서는 재귀 동사의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동사와 같은 유형의 파생 패턴은 규범어뿐만 아니라 비규범어에서도 생산적이기 때문에 어휘적인 측면에서는 주변적인 경우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dospешиться와 같은 파생 패턴의 동사들은, 즉 {접두사 + 능동형 자동사 + 후접사 -ся} 구조의 reflexiva tantum은 통사적으로는, 축소화 기능이 없는 белеться ‘하얗게 보이다’, чернеться ‘검게 보이다’, стучаться ‘두드리다’ 등과 같은 재귀 동사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접두사와의 상호결합을 통해서 이런 동사들보다 더 선명하게 과정의 양태적 한정을 나타낸다. 이성과 같은 예 35)~37)의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접두사 + 능동형 동사 + 후접사 -ся} 유형의 reflexiva tantum이 내적인 파생적 공통성과 더불어 어휘적, 통사적, 그리고 문체적 요인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위 유형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이제 본 논문의 첫 부분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보다 명료하게 답해 보자. 통사적으로, 러시아어 재귀 동사의 일반적 기능은 논항 구조의 축소화에, 다시 말해서 능동형 동사의 디폴트(default) 논항이 주어 및 직접 목적어라면 둘 중의 어느 하나나 둘 모두를 디폴트 논항의 영역에서 삭제하는 비인칭화나 탈타동화에 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러시아어 재귀 동사의 일반적 기능은 동사로 지칭되는 과정을 참여자의 의지와

귀 동사가 대격 목적어도 취할 수 있는 경우로는 слушаться маму ‘엄마 말을 따르다’ 이외에도 ‘회피 대상’을 목적어로 하는 бояться ‘두려워하다’, стыдиться ‘부끄러워하다’ 등과 같은 동사들과 ‘도달 대상’을 목적어로 하는 добиться ‘얻다’, достигнуться ‘도달하다’ 등과 같은 동사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 예들 모두 생격 논항의 지배가 간헐적으로 대격 논항으로까지 확산되는 경우들로서, 여전히 재귀 동사의 주변적인 현상이다.

상관없이 전개되는 것으로, 그리고 참여자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과정은 다른 참여자를 직접적인 피행위자로 겨냥하지 않는 양태로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내는 데 있다.

재귀 동사의 이러한 통사적인 일반적 기능과 의미적인 일반적 기능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 조응하며 결합하지만, 물론 이로부터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이 예외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질 수 있다. 하나는 통사적인 측면에서만 예외적인 재귀 동사들의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동사로부터 파생된 재귀 동사가 논항 구조의 축소화 없이 보다 한정된 의미만을 갖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파생 과정은 현대 러시아어에서 원칙적으로 생산적이기 때문에 주변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다른 하나는 통사적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 둘 다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몇몇 재귀 동사들의 경우이다. 이것은 원래 생격 논항을 지배하는 재귀 동사들이 간헐적으로 대격 논항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로서, 주변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처럼 생산적인 예외들과 주변적인 예외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재귀 동사의 본질적 특징이 능동형 동사의 디폴트 논항 구조와 의미영역을 축소화하는 데 있다는 일반적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귀 동사의 이 같은 일반적 기능은 어떻게 해서 개별 어휘들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통사-의미적 다양성을 발생시키는 것일까? 우리가 앞에서 한 고찰에 비추어 볼 때, 그 같은 다양성은 통사적으로 {(주어) + 재귀 동사}라는 구조적 핵심이 개별 어휘 속에서, 그리고 또 실제 발화 속에서 재귀 동사의 일반적인 의미적 기능과 조응하며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만일 동사가 나타내는 과정이 참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것으로 표상된다면, {(주어) + 재귀 동사}의 구조는 무주어 용법, 과정의 대상을 주어로 하는 탈타동사적 용법, 수동태적 용법 등을 향해 열려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참여자의 의지로부터 나오지만 피행위자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지 않는 과정이라면, 이 구조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자동사적 용법들이나 상호적 용법 등과 연결된다. 그리고 어떤 재귀 동사에 이러한 다수의 용법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동사의 어휘적 특성 및 이것이 구체화되는 발화적 문맥에 달렸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재귀 동사의 특정한 어휘적 하위부류들과 특정한 구조적 가능성들 사이에 규칙적인 상관관계를 설정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어느 정도 느슨한 상관관계는 보이지만 말이다. 우리가 앞에

서 살펴본 것처럼, 재귀 동사의 무주어 용법, 수동태적 용법, 그리고 접두사와 재귀 후치사의 상호결합을 통해서 동사의 의미에 대한 양태적 한정의 강화를 나타내는 패턴,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관찰은 각각의 경우마다 통사적, 의미적 요인들에 따라 그리고 때로는 문체적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더욱더 세분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귀 동사 일반의 공통적 기능은 혹은 재귀 동사의 일반적 기능은 실제 개별 어휘에서 이중의 다양화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된다. 통상 기술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되는 재귀 동사의 다양한 용법들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어휘소로서 개별 재귀 동사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들이다. 물론 하나의 재귀 동사 안에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다 나타나지는 않는다. 재귀 동사는 그것이 어떤 능동형 동사로부터 파생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구조적 가능성(들)을 갖느냐가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결정은 재귀 동사가 실제 발화 속에서 어떤 의미적 유형의 논항(들)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맥적 전형성 및 화용적 요인들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령 물리적 과정을 나타내는 불안료상 타동사들로부터 파생된 재귀 동사들 모두가 수동태적 구조화의 가능성을 갖게 되지는 않는 것이다. 요컨대, 재귀 동사의 일반적 기능과 그것의 전형적인 구조적 가능성들은 러시아어 동사의 체계 내적인 사실이라면, 개별 재귀 동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가능성(들)을 특징적으로 갖게 되느냐의 문제는 그러한 체계 내적인 사실과 그리고 발화를 통한 해당 동사의 실제적 사용 사이의 상호작용이 관습적으로, 규범적으로 정형화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참고문헌

- 이기웅(1993) 「러시아어의 태를 통해서 본 문법 의미 기술의 체문제」, 『언어학』, 제15호, 281-303쪽.
- _____ (2002) 「러시아어 동사의 논항값」, 『언어학』, 제34호, 187-221쪽.
- Виноградов, В. В.(1972/1947) *Русский язык*, М.: Высшая школа.
- Исаченко, А. В.(1965)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стро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словацком*, Братислава: Изд. Словац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 Крысько, В. Б.(2006) *Исторический синтакси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Азбуковник.
- Ломоносов, М. В.(1952/1755) *Россий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 7, М.: Изд. АН СССР.
- Пешковский, А. М.(1956/1914)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М.: Уче.-педа. изд.
- Фортунатов, Ф. Ф.(1987/1957) “Сравнительная морфология индоевропейских языков,”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Т. 2, М.: Уче.-педа. изд, С. 257-426.
- Храковский, В. С.(1981) “Диатеза и референтность,” *Залоговые конструкции в разноструктурных языках*, Л.: Наука, С. 5-38.
- Шахматов, А. А.(1941/1925-27) *Синтакси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Л.: Уче.-педа. изд.
- Шведова, Н. Ю. и др.(1970) *Грам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М.: Наука.
- _____ (198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М.: Наука.
- Янко-Триницкая, Н. А.(1962) *Возвратные глаголы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М.: Изд. АН СССР.
- Ahn, Hyug(2006) “The Semantics of SJA in Russian: Focus on the Action,” Ph.D. Dissertation,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_____ (2007a) “The Semantics of SJA in Russian: Passive SJA and its peripheral SJAs,” *Rusistika*,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Vol. 25, pp. 219-246.
- _____ (2007b) “Semantic Network of the REFLEXIVE SJA Constructions in

- Russian: Prototype and Case Meanings,” *Russian Studies*,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and Eurasi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 Vol. 26, № 2, pp. 211-240.
- Babby, L. H. and R. D. Brecht(1975) “The Syntax of Voice in Russian,” *Language*, 51:1, pp. 342-367.
- Gerritsen, Nelleke(1990) *Russian Reflexive Verbs*, Amstrdam: Atlanta.
- Israeli, Alina(1997) *Semantics and Pragmatics of the “Reflexive” Verbs in Russian*, München: Otto Sagner.
- Jakobson, R.(1971/1932) “Zur Struktur des russischen Verbums,” *Selected Writings II*, The Hague: Mouton, pp. 3-15.
- _____ (1971/1957)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Selected Writings II*, The Hague: Mouton, pp. 130-153.
- Karcevski, Sergei(1927) *Système du verbe russe*, Thèse, Univ. de Genève, Prague.
- Lee, Kee Woong(1990) “Analyse de la catégorie grammaticale de la voix en russe "littéraire”,” Thèse du Doctorat, Univ. Paris V.
- Tesnière, Lucien(1965/1959)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 Williams, Adger(1993) “The so-called Reflexive Marker -Sja in Russian,” Ph.D. Dissertation, UCLA.

Abstract**The Valence Structure of the Russian Reflexive Verb****Lee, Kee Woong***

This paper explicitly reformulates the general function of the Russian reflexive verb, the syntactic and semantic diversity of which has been well known to linguists, and explains how such a diversity emerges from this single general function called “recessive.” Syntactically, it reduces the default argument scope of the non-reflexive verb by deleting one or two arguments from there; semantically, it determines the meaning of the verb in the manner that the process denoted by the verb develops by itself without volition of its participant or that the process, when it has a volitional subject, does not target an external object. These syntactic and semantic aspects of the general function of the reflexive verb correspond to each other and combine to form various types of structural possibilities on the lexical level of verbal classes. Each of these structural possibilities is more particularized into various subtypes according to the lexico-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reflexive verbs and according to the pragmatical and stylistic factors related to their use in utterance.

Key words: Reflexive Verb, Valence Structure, Recessive Function, Grammatical Voice, Impersonalization, Detransitivization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이 기 응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파리 5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러시아어 동사의 문법 범주로서 태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분야에서 일반 언어학과 러시아어학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문화론으로 관심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의 저서와 논문으로는 『러시아어와 감정의 토포스』와 「러시아와 유라시아」가 있다.

Lee, Kee Woo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linguistics at University Paris V. He has been publishing articles on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in general linguistics and Russian linguistics. His rec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Russian cultural studies also. His recent publications are *Russian Language and Topoi of Affect*, and “Russia and Eurasia.”

논문심사일정

| | |
|--------|--------------------------|
| 논문투고일: | 2017. 3. 28 |
| 논문심사일: | 2017. 4. 17 ~ 2017. 5. 3 |
| 심사완료일: | 2017. 5. 8 |